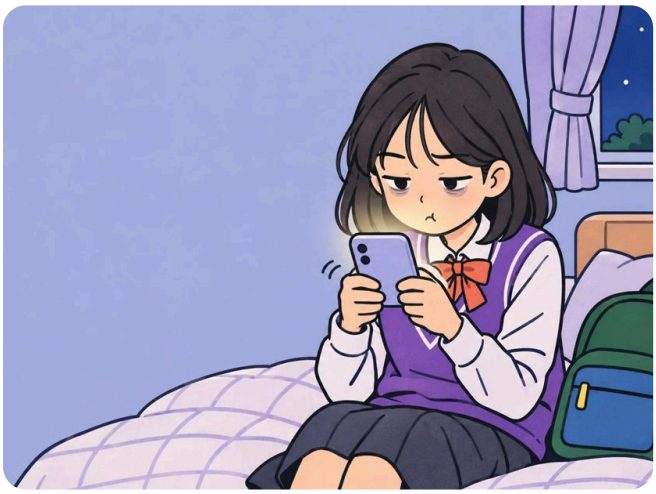


이야기 카드 1

“너나 잘해!”

모둠 발표 연습 중, 소율이가 “현우야, 거기 순서 틀렸어.”라고 말했다. 다른 친구들이 현우를 쳐다보자 현우가 “너나 잘해!” 하고 소리쳤다. 모둠이 갑자기 조용해졌다.



이야기 카드 2

쏘아붙인 답장

학원에서 밤 10시에 돌아온 나연이에게 모둠 단톡방 알림이 쌓여 있었다. “나연아, 네 부분 언제 올려?” 나연이는 “알아서 할게, 재촉 좀 하지 마.”라고 바로 보냈다.



이야기 카드 3

던져 버린 실내화

체육 시간 피구에서 은찬이가 처음으로 맞아 가장 먼저 밖으로 나왔다. 누군가 “벌써?” 하고 웃었다. 교실로 돌아온 은찬이는 실내화를 사물함에 확 던졌다.